

박윤정

피.아.노.독.주.회

Park Yoon Jung

Piano Recital

Open Rehearsal 15시30분

이 공연은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오픈 리허설로 진행됩니다

2011년 10월 4일(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극장

후 원 : BSC 부산문화재단 / 독우회 / 한양대학교 음대동문회 / 부산예고 동문회

공연문의 : 010.9878.1973

* 위 공연은 2011년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 예술 기획지원사업의 일부 지원으로 이뤄지는 공연입니다

Park Yoon Jung Piano Recital

Park Yoon Jung Piano Recital

박윤정
피아노독주회



박 윤 정 | Park, Yoon Jung

* 학 력

- 부산예술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 음대 피아노과 졸업
- 독일 Detmold (abt. Dortmund) 국립음대 졸업
- 이태리 Arts Roma International Accademy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로마 A.I.D.M. Accademy 반주과정 diploma
- 로마 A.R.A.M. Accademy 오페라 해석과정 diploma

* 약 력

- 이태리 폴란드 문화원 주관 뮤직 페스티벌 초청 독주회 및 로마, 독일 예센, 도르트문트 독주회, 귀국독주회 등 다수의 독주회
- 독일, 이태리 로마, 부산, 서울에서 다수의 피아노 듀오 연주 및 실내악 연주, 독창회 반주
- 독우회, 피아노 연주가 클럽, 부산음악협회, 한국창작가곡협회 정기연주회 출연
- 부암아트홀 초청 토요일악회, 금정 수요일악회, 목요일악회 출연
- 오페라 '여자는 다 그래', '박쥐', '리골렛토' 음악코치 역임
- Anatol Ugorsky, Klaus Shilder, Peter Feuchtwanger 사사의 국제 마스터 클래스 수료
- 한양대 피아노과 추계 정기연주회 출연 및 듀오 정기연주회 출연
- 서울 타임이저 콩쿨 2년 연속 1등입상, 부산 음교 콩쿨 특상등 다수 입상 경력
- 현. 부산교대 / 동아대 / 부산예고 외래교수

Program

W.A. Mozart
(1756-1791)

Piano Sonata K.331 A-Major
andante grazioso
menuetto-trio
Alla Turca: allegretto

L.V. Beethoven
(1770-1827)

Piano Sonata op.27 no.2 c#-minor 'Moonlight(월광)'
adagio sostenuto
allegretto
presto agitato

- intermission -

F. Chopin
(1810-1849)

Ballade no.1 op.23 g-minor
Ballade no.2 op.38 F-Major

E. Chabrier
(1841-1894)

Bourrée fantasque

곡 / 목 / 해 / 설

*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제14번 '월광'

건반음악 역사상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곡집을 피아노 음악의 구약성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피아노 음악의 신약성서라 부르는데, 피아노 소나타라는 장르를 완성 시키는데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제14번 월광(Moonlight)

이 곡에는 많은 작곡 동기가 전해진다. 베토벤이 한 번 언 소녀를 위해 작곡했다고도 하고, 호숫가의 달빛에 감동되어 작곡했다고도 하고, 혹은 사랑하는 연인을 보내는 이별의 편지로도 지어졌다고 한다.

베토벤은 이 곡을 환상곡 풍의 소나타(Sonata quasi una fantasia)라는 제목으로 출판했으나 출판된 지 30년 후인 1832년, 독일의 시인이자 음악평론가였던 루트비히 쉘슈타트가 "이 작품은 마치 호수위의 달빛이 물결에 흔들리는 조각배 같은 느낌을 준다"고 평한데서 월광(달빛: Moonlight)이란 부제가 붙어졌다.

1악장 : 전통적 소나타 형식의 빠른 악장을 버리고 대신 느린 악장으로 되어 있으며 환상적이며 부드러운 서정성을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환상곡 풍이다.

2악장 : 그 기분이 전환되며 전원의 무곡으로서 유머러스하고 경쾌한 맛이 감돈다.

3악장 : 정열과 원숙한 구성의 피아노적 효과 및 악곡의 표현력을 최대로 고조시키고 있다. 무겁게 떠도는 암흑속에서 섬광을 일으키는 천둥과 번개처럼 격한 분위기가 힘차게 전개되어 당시 베토벤이 지니고 있던 청춘의 괴로움과 정열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

* 모짜르트 피아노소나타 K.331

이 곡은 모짜르트가 22세인 1778년 5~7월 사이에 여행지인 파리에서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빈이나 잘츠부르크에서 1783년에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나타로서는 특이하게 어느 악장도 소나타 형식을 취하지 않고 제 1악장 변주곡, 제 2악장 메뉴엣, 제 3악장 론도로 되어있다. 특히 3악장은 '터키행진곡'이란 부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당시 터키군대의 음악이 유럽에 크게 유행하고 있었으며, 모짜르트가 'Alla Turca(터키풍으로)'로 당대 유행했던 터키풀의 취미를 반영하였다.

* 쇼팽 발라드 1번, 2번

쇼팽은 총 4개의 발라드를 그의 나이 21세에서 32세까지의 가장 화려한 활동 시기 중 작곡하였다. 형식은 자유로우면서 모두 세박자 계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인가 '이야기' 하려는 의도와 가장 알맞기 때문이다. 쇼팽은 4곡의 이야기 줄거리를 그와 같은 폴란드 출신인 시인 미키에비츠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어떤 표제적은 것보다는 시를 읽었을 때 받은 주관적 정서를 곡 속에 추상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여진다.

* 샤브리에 부레 환타소

샤브리에에는 초기 인상주의 음악가로 드뷔시 라벨의 존경을 받은 인물이며 그의 음악은 명확한 화성, 강렬한 리듬감과 화려한 관현악의 색채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화가 마네의 친구이며 많은 예술가들과도 교분을 갖고 있었다. 그의 피아노작품에서도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곡은 1891년에 작곡된 곡으로 그의 생전 마지막으로 출판된 작품이다. 부레(Bourrée)는 17세기 프랑스 오르베뉴 지방에서 전해오는 빠른 2박자의 무곡 리듬으로, 이곡은 3부 형식으로 되어있다. 격렬한 반복음속에 전음계와 반음계적 진행이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며 피아니즘의 극치를 보여준다.